

## 육아정책 소식

### 교육부, 지역 중심 돌봄생태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10일(수) 서울 도봉구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범정부공동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는 돌봄서비스 확산을 위해 범정부 제도 개선, 부처 간 정책조정, 공동사업 발굴 등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3월 18일부터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회의부터는 관련 부처,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업을 실행하는 기초 지자체장도 포함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의 확대와 지역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가 모든 아이의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빈틈없는 돌봄체계구현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누리과정이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자리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5월 16일(목) 이화여자대학교 LG컨벤션홀에서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의 주관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본 공청회를 통해 누리과정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교육과정심의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7월 중 확정 및 고시되며, 전국의 유치원·어린이집에 2020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본 누리과정 개정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으로는, 2017년 12월 “유아교육 혁신방안”에서 제시한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여 유아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21세기 핵심역량인 창의성, 감성, 사회성을 키우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한 주요 특징으로는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체계성을 확립**했으며,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우며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는 **유아 중심의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누리과정 개정 방향 〉

현 행	구분	개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준비교육 위주의 학습</li> <li>• 유아 개개인의 특성 반영 미흡</li> </ul>	구성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b>내용 구성 최소화</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서 위주의 교사 주도적 교육</li> <li>• 구조화된 놀이학습 위주 교육</li> </ul>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의 <b>주도적·자발적 놀이 권장</b></li> <li>• 놀이 관찰과 기록, 교사-유아와의 질적 상호작용 등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복잡한 구성(5개영역-주제-소주제-단위활동)으로 현장의 자율적 구성에 한계</li> </ul>	구성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운영의 <b>다양성과 자율성을 최대화</b>하기 위해 세부 내용 삭제</li> </ul>

## 올해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5월 29일(수),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밝혔다. 기존 「영유아보육법」 제12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난 해 12월 법률 개정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부터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심의할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 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한다.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보육 이용율 40%’ 목표가 보다 빠르게 달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기존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되었으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6세 미만(0~5세) 모든 아동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또한 6세에서 7세 미만 아동을게로 확대되어 272만 9000여명이 수혜자가 된다. 이에 대한 신청 방법은 7~8월 중에 별도 안내된다.

〈 아동수당 제도 개요('19.4월 기준) 〉

- 목적: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복지 증진
- 대상: 6세 미만 모든 아동
- 지원: 월 10만 원(지자체가 여건을 고려해 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 가능)
- 방법:
  -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부모(또는 보호자)의 신분증 지참
  - 2)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나 앱으로 온라인 신청: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로 빅데이터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어린이날을 맞아, 2018년 진료자료를 바탕으로 어린이의 다빈도 질병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8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어린이는 총 402명으로, 이 중 취학전 아동은 133만 8912명, 초등 저학년 아동은 134만 8409명, 초등 고학년 아동은 133만 9503명으로, 2009년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 다빈도 상위 10위 질병 중 6개 질병이 호흡기 관련 질환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질병의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치아 관련 질환과 계절적 영향을 받은 염증성 질환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취학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아동들 간 자주 발병하는 질환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 다빈도 질병분석 주요내용 〉

어린이 공통	총치 및 계절성질환 조심 - 올바른 청결 습관 필요 • (치아우식) 진료인원 144만 7655명,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 감소 • (염증성 질환) 접촉피부염 여름, 장염 여름·겨울, 결막염 봄~가을 주로 발병
취학전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해, 감염 및 염증성 질환 조심 • (중이염) 진료인원 33만 803명, 4월 환절기 및 12월 겨울철에 특히 진료인원 많음 • (수족구 관련 질병) 진료인원 8만 7644명, 계절성 강하여 7월에 진료인원 집중
초등 저학년	스마트폰·컴퓨터 사용과 학습의 시작으로, 시력 이상 조심 • (굴절 및 조절의 장애) 진료인원 31만 191명, 근시 15만 6132명, 난시 10만 7182명 • (전염성 물렁종) 진료인원 3만 6308명, 계절성 나타나지 않음
초등 고학년	활발한 야외활동으로, 근골격계 부상 조심! •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진료인원 26만 4454명 남학생이 15만 6325명으로 여학생 10만 8129명보다 많음

##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4월 11일(목)에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에 의거하여 3년에 한 번씩 실시되며, 올해 조사내용은 자녀 돌봄, 생활 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 환경, 지원 사업 등 8개 분야, 19개 항목, 120개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주요내용 〉

일반 특성	평균연령 43.1세, 대다수가 이혼 한부모(77.6%), 평균 1.5명의 자녀 양육
소득	월평균소득 약 220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절반 수준
경제활동	한부모 84.2%는 취업 중, 상용근로자 비율 증가 등 고용안정성 다소 개선
주거	전·월세 비율은 줄고 공공임대 입주자는 늘어남.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 향상됨.
자녀양육	초등생 자녀 돌봄교실·방과후 교실 이용비율이 증가함(47%→53.9%)
정부정책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12년 30.4%→'15년 41.5%→'18년 46.0%)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교육급여 대상 확대 영향으로 보임.
양육비 이행 현황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12년 대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83.0%→73.1%)했으며, '최근까지 정기지급'은 증가(5.6%→15.2%)함.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순.

## 국립대학 최초 공동직장어린이집, 강릉원주대학교해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 경우)은 5월 9일(목) 오전 11시 국립대학교 최초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강릉원주대학교해람어린이집' 개원식 개최를 알렸다. 강릉원주대학교해람어린이집은 2017년 공단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대상자로 공모 선정 되어 지난 3월에 문을 열었으며, 강릉원주대학교가 부지 및 비용을 부담하고, 강릉과학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34개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근로복지공단 심 경우 이사장은 "이번에 개원하는 강릉원주대학교해람어린이집을 개기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